
복원력

Ⅰ. 금융기관	79
Ⅱ. 대외지급능력	84
Ⅲ. 금융시장인프라	87

I.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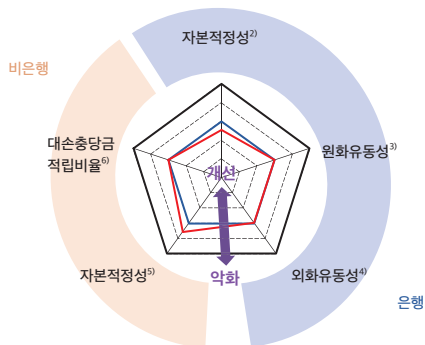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향후 채무상환 유예,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의 조치들이 정상화될 경우 취약부문의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 2020년 하반기 대상기간 — 2021년 상반기 대상기간



주: 1) 2020년말 대비 2021년 1/4분기말(은행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은 21년 4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4) 외화 LCR
- 5)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 6) 증권회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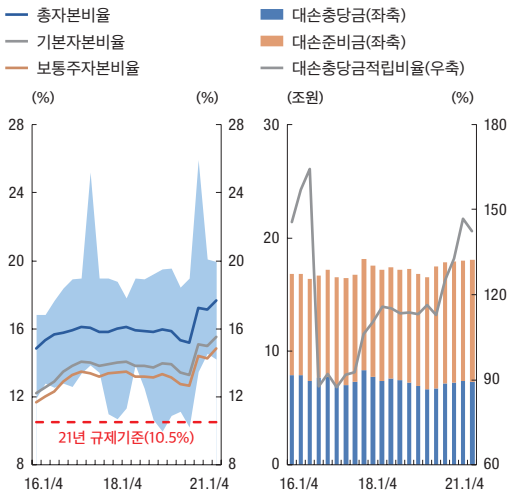
손실흡수능력 강화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17.65%로 전년말(17.15%)보다 0.50%포인트 상승하였다. 보통주 자본비율은 14.85%로 전년말 대비 0.57%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1년 규제기준(10.5%, D-SIB¹⁾ 11.5%, 인터넷전문은행 9.25%)을 크게 상회하였다.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상승은 순이익 개선과 일부 은행의 바젤Ⅲ 최종안²⁾ 도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하여신)은 142.2%로 전년말(146.8%) 대비 4.6%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직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고정하여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부실 증가 등에 대한 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그림 I-2, 그림 I-3).

1)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2) 신용리스크 산출시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험가중자산 감소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1-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²⁾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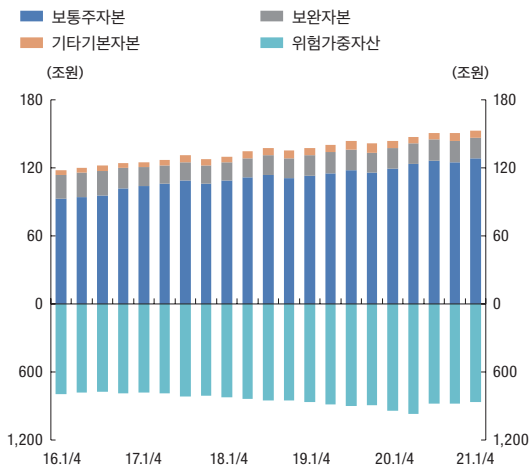


주: 1) 기말 기준

-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미하여선.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 3) 2021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요인¹⁾²⁾



주: 1) 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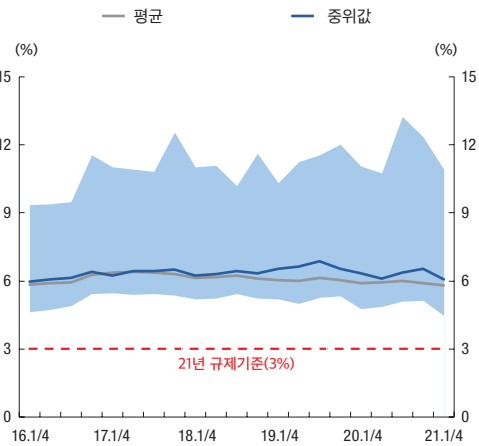
-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3)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³⁾은 2021년 1/4분기 말 5.79%로 전년말(5.92%) 대비 0.13%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이 확대되면서 총익스포저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규제기준(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³⁾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로 공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3)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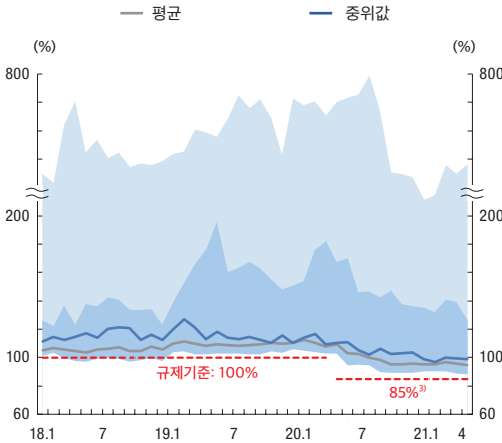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1년 4월말 94.9%로 전년말(95.1%)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다.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기성 자금 증가 등으로 순현금유출액이 더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 → 20년 4월~21년 9월중 한시적으로 85% 적용)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신용공급의 결과

한시적 규제비율(85%)에 근접한 일부 은행의 경우 LCR 규제 완화조치 종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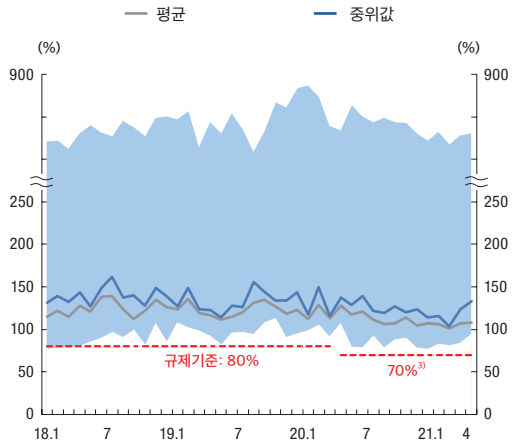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1년 9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⁴⁾은 2021년 4월말 107.7%로 전년말(107.3%) 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80% → 20년 4월~21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70% 적용)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¹⁾²⁾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월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1년 9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⁵⁾(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1년 1/4분기말 111.2%로 모든 은행들이 규제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표 I-1. 일반은행 NSFR¹⁾²⁾

	2019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평균	112.1	111.2	111.2	113.5	111.7	111.6	111.1	112.2	111.2
중위값	111.2	110.3	108.3	111.3	111.9	110.1	109.4	110.3	108.2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2021년 규제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4)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로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비율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9년 최종 규제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한편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화 LCR 규제비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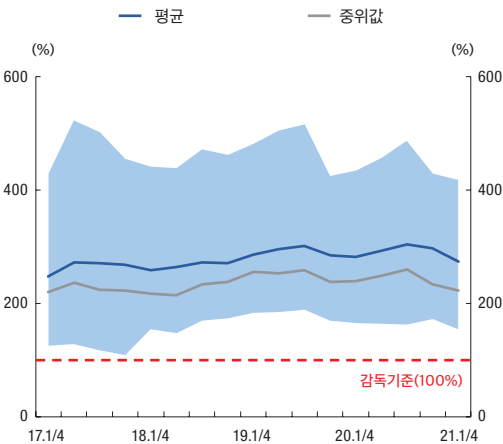
5)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다(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부터 적용).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대체로 양호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비율⁶⁾(RBC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273.2%⁷⁾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⁸⁾ 등으로 전년말(297.3%)에 비해 24.1%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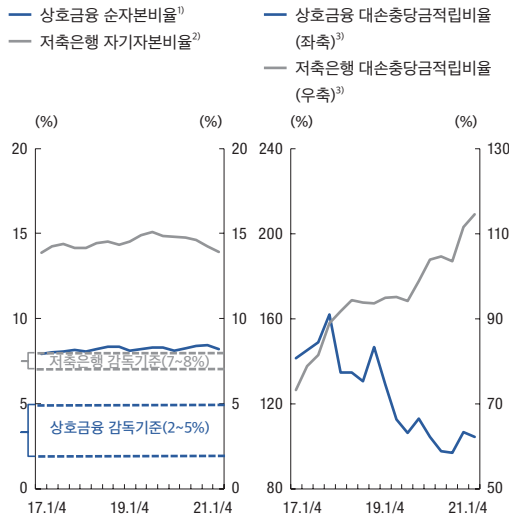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운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업체별 RBC비율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인해 전년말(106.8%) 대비 2.2%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13.9%로 전년말(14.2%)에 비해 0.3%포인트 하락⁹⁾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114.5%)은 전년말(111.5%) 대비 3.0%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8.2%로 전년말(8.4%)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4.6%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신용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에 따른 자산 증가¹⁰⁾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4분기말 18.6%를 기

6)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7) 2021년 1/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24.8%로 전년말 대비 9.2%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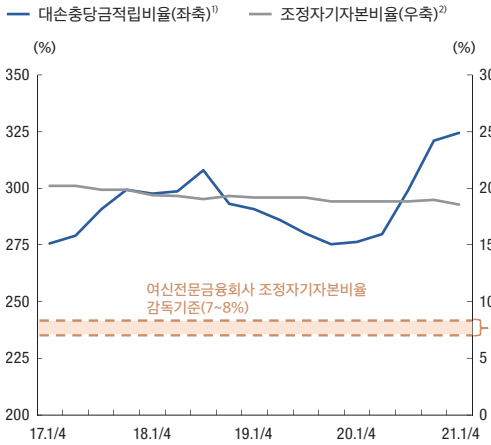
8)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시가평가손익이 자본에 반영)으로 분류된 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1/4분기말 35.0%로 은행(7.9%), 증권회사(4.8%) 등에 비해 높아 채권평가손실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9) 대출 확대 등으로 2021년 1/4분기말 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82.7조원)이 전년말 대비 7.1% 증가하여 동 기간중 자기자본 증가율(4.6%)을 상회하였다.

10) 금융당국은 2020년 9월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 완화를 위해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6배에서 8배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조정총자산은 2021년 1/4분기말 133.5조원으로 전년말(130.2조원) 대비 3.3조원 증가하였다.

록하여 전년말(18.9%)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324.4%로 전년말(321.0%) 대비 3.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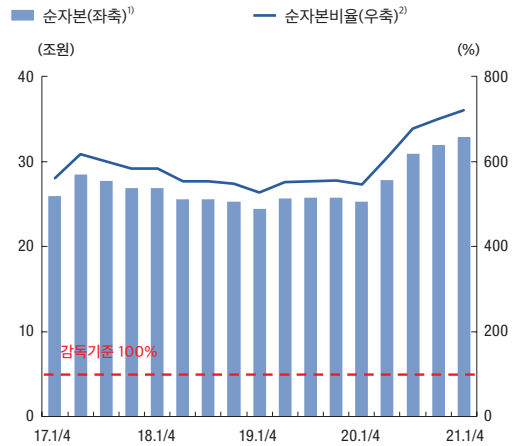
그림 I-9.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유가증권 투자 이익 및 수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21년 1/4분기말 719.9%를 기록하여 전년말(698.6%) 대비 21.3%포인트 상승¹¹⁾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은 은행 대비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신용리스크에 취약하다. 이에 더해 증권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단기 시장성자금의 존도가 커서¹²⁾ 유동성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자본규제가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다.¹³⁾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외부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11) 2021년 1/4분기말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61.0조원)은 전년말 대비 1.4조원 증가한 반면 총위험액(28.2조원)은 0.4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32.8조원)이 1.0조원 증가하였다.
 12) 증권회사의 경우 RP-단기사채 등 단기차입 비중이 36%(196조원, 20년말)를 차지하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차입의 대부분을 여전채(170조원, 74%)에 의존하고 있다.
 13) 금융감독당국은 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신지급여력비율제도를 2023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동 제도 도입시 부채의 만기가 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부채평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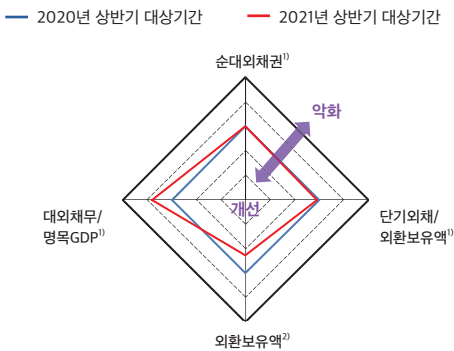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축소된 가운데,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단기외채에 비해 장기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락하였다. 한편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은 2021년 5월말 4,564.6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 1/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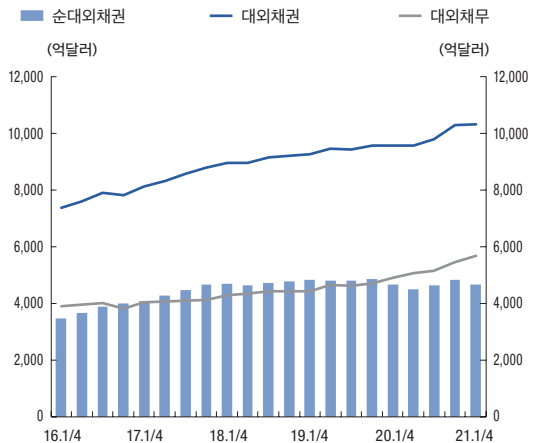


주: 1) 2020년 1/4분기말 대비 2021년 1/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20년 5월말 대비 2021년 5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소폭 축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1년 1/4분기말 4,64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2%(-10억달러) 소폭 축소되었다(그림 II-2).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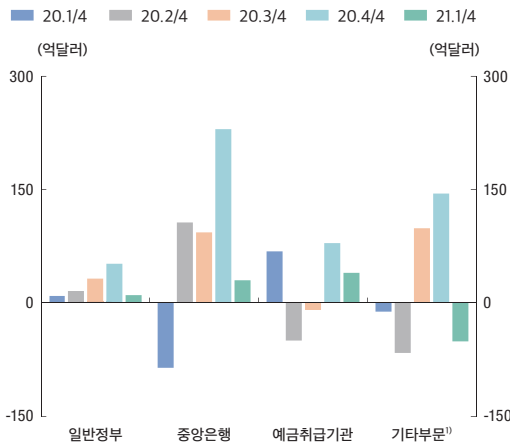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1년 1/4분기말 10,30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9%(+756억달러) 증가하였다.

2020년 4/4분기~2021년 1/4분기중 대외채권 변동(+535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따라 260억달러 증가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은 외은지점의 매입외환 취급이 늘어나면서 119억달러 증가하였다. 기타부분도 일반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94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일반정부는 62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3).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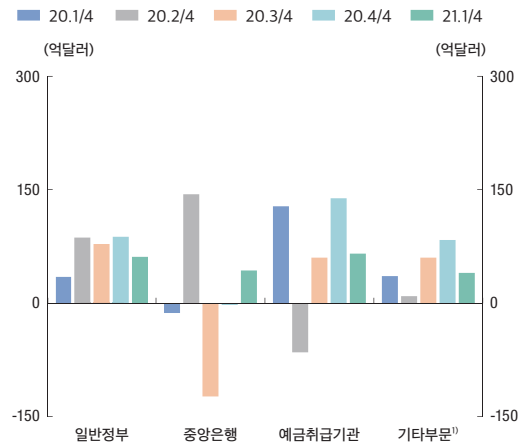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1년 1/4분기말 5,65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7%(+767억달러) 증가하였다.

2020년 4/4분기~2021년 1/4분기중 대외채무 변동(+516억달러)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이 외은지점의 대외차입 증가 등으로 204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 및 중앙은행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각각 148억달러 및 40억달러 증가하였다. 기타부문도 일반기업의 무역신용 및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123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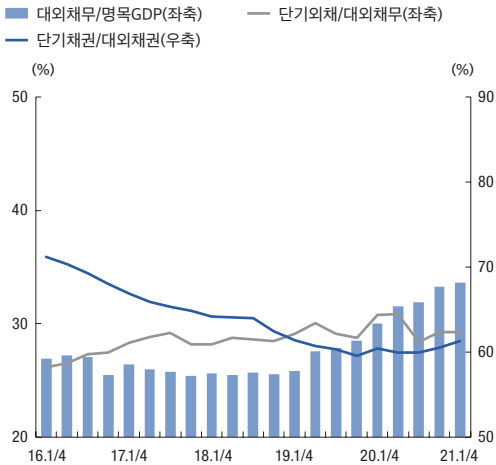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33.6%로 전년동기(30.0%)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3%로 전년동기(30.7%) 대비 하락하였다. 대외채권 대비 단기채권 비중은 61.2%로 전년동기(60.4%) 대비 상승하였다(그림 II-5).

한편 2020년중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등이 상당폭 확대되었으나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 외화자금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외채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외채 건전성에 대해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추가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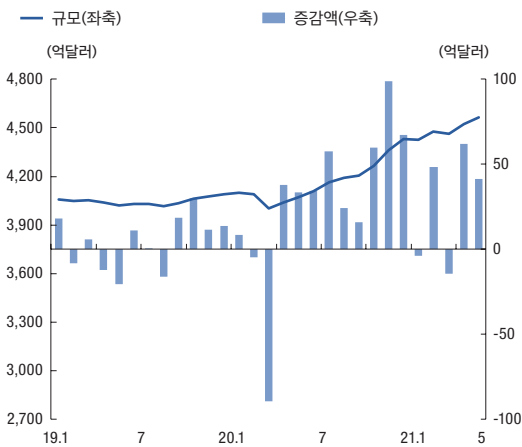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 수준 기록

2021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 4,564.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최근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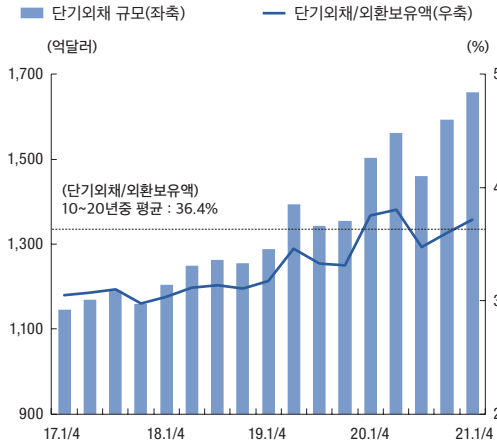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37.1%로 전년동기(37.6%) 대비 0.5%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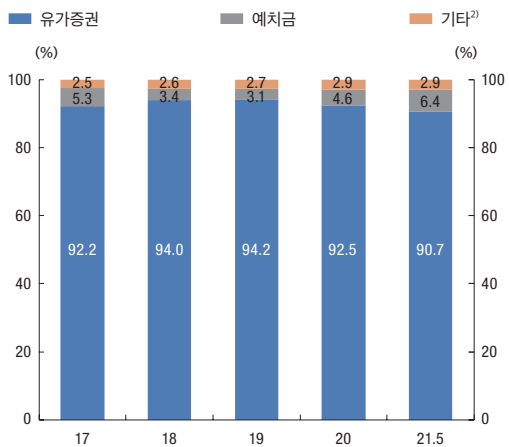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1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90.7%) 및 예치금(6.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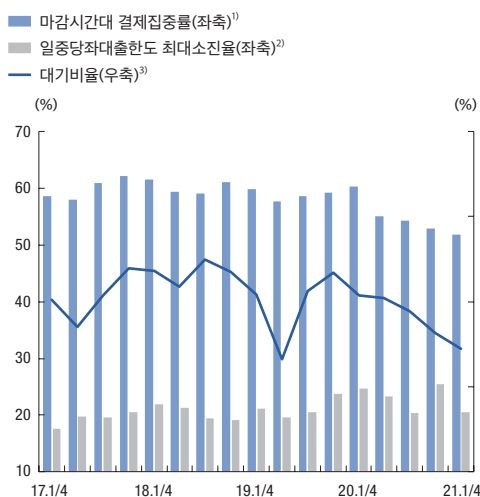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앞으로도 지급결제시스템이 업무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은금융망¹⁾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1년 1/4분기중 471.7조원으로 지난해(423.6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소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1년 1/4분기중 각각 20.5%, 2.9%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1/4분기중 51.9%로 전년동기(60.3%)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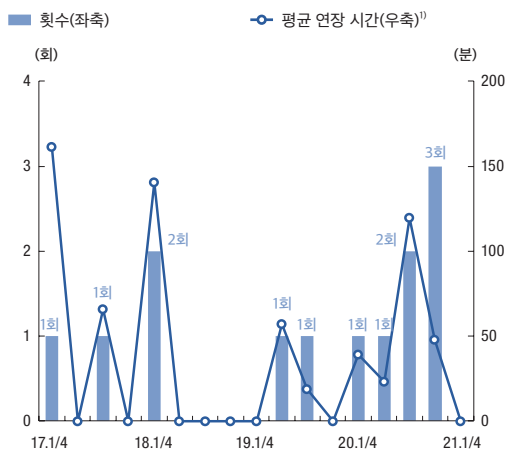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해당 기간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소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1/4분기중 한은금융망은 마감시간 연장 없이 운영되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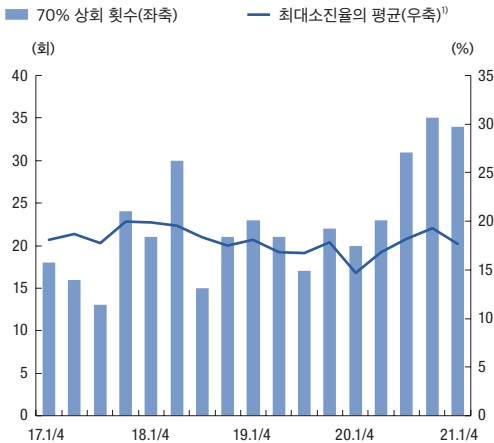
1)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5년여에 걸친 구축작업을 거쳐 2020년 10월 12일에 성공적으로 가동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1년 1/4분기중 89.9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80.2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²⁾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34회로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20회)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이 2021년 1/4분기중 17.7%로 전년동기(14.7%)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액은 2021년 1/4분기중 214.8조원으로 기관간 RP, 주식, 채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05.1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는 기준시한(16:00, 17:0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 한편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기준시한(16:50) 이후 결제 사례가 발생(2회)하였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¹⁾

	기준시한 ²⁾	비중(%)				
		2020년				2021년
		1/4	2/4	3/4	4/4	1/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 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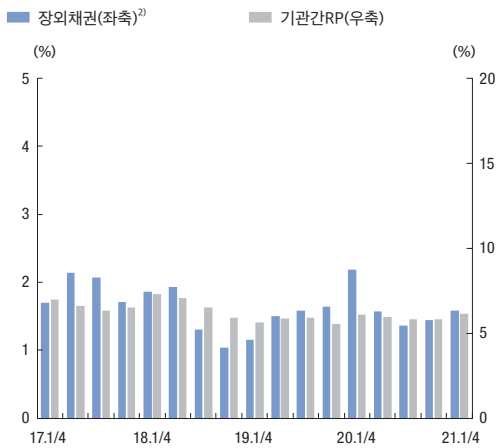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이 2021년 1/4분기중 각각 1.6% 및 6.1%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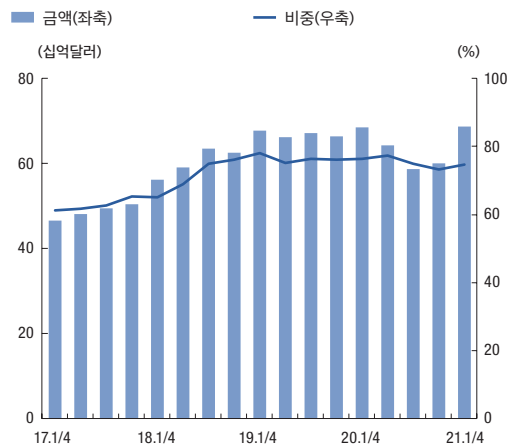
2)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Ⅲ-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외환결제시스템³⁾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⁴⁾의 결제액은 2021년 1/4분기중 일평균 687.0억달러로 지난해(628.4억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1년 1/4분기중 7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Ⅲ-5).

3)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4)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18개 CLS 결제통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